Photonics NEWS

회원사 동정

진흥회 회원사들 매출 상승세

올들어 진흥회 회원사업들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니셀, 바이오닉스, 프라임포텍, 등 진흥회 회원사들은 마케팅을 강화하고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한 데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00~300% 이상 증가한 매출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진흥회 관련 회원사들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여 온데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신제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품질향상 노력으로 제품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튬전지 전문제조업체 애니셀(대표 임영우)는 내수 및 수출이 활기를 보이면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정도 증가한 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하반기에도 70억~80억원의 매출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피부미용기 및 음이온오존살균기 제조업체 바이오닉스(대표 황현배)는 일본 · 중국 · 미국 등지의 수출증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0% 이상 증가한 3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매출호조세가 이어져 총 10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광통신부품업체 프라임포텍(대표 양순호)도 중국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한 3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 지방중기청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에 그동안 제품판매가 거의 없었던 회원사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어 회원사 업체들의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애니셀 임영우 사장은 "생산라인을 새로 구축해 품질강화에 힘쓰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 그동안의 노력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수출계약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는 회사가 안정적인 운영체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부품동향

전체적인 광산업 경기 회복론 제기

최근 일부 광통신부품에 대한 가격이 소폭 오르거나 대량의 수출계약이 이뤄지면서 광산업 경기에 대한 조심스런 회복론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커플러 · 페룰 · 스플리터 등 광통신부품 가격이 5~10% 오르는 등 지난해 상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여 온 일부 광통신부품 가격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광커플러의 경우 지난해 말 개당 18~20달러에 거래됐으나 최근들어 20~25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90~120달러이던 스플리터칩도 130~15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또 실리콘 소재 파이버어레이도 지난해 말에는 100~12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150달러까지 치솟았으며 특수 페룰은 지난해 하반기 1.1~1.3달러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일부 광통신부품 가격이 오르거나 바닥을 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올들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업체가 국내 업체의 제품을 대량 구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판로부족에 따른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 온 국내 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 광통신부품 관련 전시회에 국내외 업체들이 신제품 · 기술을 대거 선보이는 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내년 이후부터는 광산업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광주지역 광통신부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광산업경기가 회복된다고 단정할 만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제품가격이 진정되고 대량 수출계약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 대만업체들의 시장진출로 덤핑 공세가 심화되는데다 미국 · 일본 등의 대형 시스템사들의 투

자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장 낙관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점차 호전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하락, 판로부족, 투자감소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며 "광산업체들에는 앞으로 1~2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권 산업단지 포털 개통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본부장 이승우)가 지난 7월 24일 광주권 디지털산업단지 포털사이트(http://www.gjdic.net)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광주 첨단, 평동외국인단지 등 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400여개 기업들의 정보화와 전자상거래 기반을 제공할 이 사이트는 지난해 5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광주지역 특화사업인 광산업분야, 입주업체 생산품목 3차원 입체영상 카탈로그, 사이버 문예춘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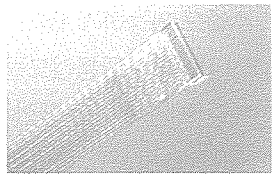
이와 함께 입주업체들에 각종 산업기술과 경영 관련법, 여행, 의료 · 건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광주 · 전남테크노파크와 대학 등 외부기관의 온라인 컨설팅과 세무 · 법률 등 행정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남부지역본부는 오는 2004년까지 전국 산단 통합포털사이트와 연계해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 등 입주업체들의 e비즈니스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옵테론
미국 3개회사에 파이버 어레이 140만달러 수출계약

광통신 부품 개발업체 옵테론(대표 신권식 http://www.opteron.co.kr)은 최근 A사 등 미국 3개 업체에 140만달러 상당의 파이버 어레이(Fiber Array)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 A와 6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은데 이어 올해 말까지 L사와 D사에 각각 40만달러와 35만달러 상당의 파이버 어레이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 회사는 최근 미국의 W사에 팬아웃 어레이(Fan Array) 1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보류됐던 일본 하타연삭과도 30억원 가량의 파이버 어레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공급협상도 재개하고 있으며 광통신 부품업체인 I사, A사 등 4~5개사와 물량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등 활발히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옵테론이 개발한 광통신 부품 핵심소자인 파이버 어레이와 팬아웃 어레이는 미 텔코디아 인증규격 제품으로 코아변동률과 박리현상 등 각종 환경시험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신권식 사장은 "해외 업체들의 주문이 쇄도하는 이유는 어레이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내 광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및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노팩
광통신용 모듈 패키지 국내 첫 양산

광전자통신부품 패키지 전문 제조업체 나노팩(대표 박병재 http://www.nanopack.com)은 포토다이오드(PD)와 레이저다이오드(LD) 등의 부품을 패키지 내부에 집적한 광통신용 모듈 생산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 대량생산체제를 갖췄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 및 제품은 그동안 일본 교세라 등 외국업체가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분야로 국내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입대체효과뿐만 아니라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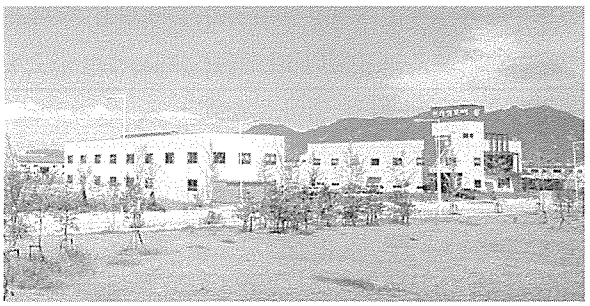
나노팩은 광통신모듈을 위한 버터플라이(Butterfly)를 매달 10만개 이상 생산하고 미니딜(Mini-DIL)과 미니플랫(Mini-FLAT), 렌즈캡 및 티오 패키지 등의 제품도 각각 월 30만~500만개 정도를 양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 회사는 최근 10 PD 모듈용 패키지를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공급해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동전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표면실장형(SMD) 세라믹 표면탄성파(SAW)필터도 국내 최초로 개발, 월 500만개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은과 동의 합금을 사용해 세라믹과 금속을 접합하는 브레이징(brazing)기술을 비롯, 칩과 패키지를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wire bonding)을 위한 무전해 금도금 기술, 무반사코팅막 형성 및 광투과율 측정기술 등 광통신 모듈 패키지 제조기술과 설비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로 알려졌으며 미국과 일본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박병재 사장은 "초고속 광인터넷 핵심부품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고주파(RF) 설계기술 및 신뢰성 평가기술 등 신기술 및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일본 · 대만업체와의 수출계약이 성사될 경우 올해 이 부문에서만 약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973-8778.

프라임포텍,
페룰 일본에 역수출한데 이어 중국에 기술이전



일본에서 광통신부품 제조기술을 배운 국내 업체가 일본에 이 기술을 역수출한 데 이어 중국에 대량 수출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광통신 부품 · 장비 개발 전문업체 프라임포텍(대표 양순호 http://www.primepotek.com)은 지난 2000년 5월 일본 오카베로부터 광섬유 커넥터 핵심부품 페룰(ferrule)의 제조기술을 도입한 뒤 자체 기술을 이용, 완전 국산화에 성공해 6개월만에 전세계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 온 일본의 2~3개 업체에 역수출하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L사 · D사 등 경쟁사에 비해 3~4년 늦게 출발한 후발업체임에도 불구, 제조라인과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1년여만에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으며 최근에는 중국 '닝보운승광통신기술유한공사' 기술진 10명을 초청해 페룰 제조 및 설비라인에 대한 기술이전을 실시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 주관아래 실시된 윤셍그룹의 광 페룰 생산라인 국제 입찰에서 일본의 퍼스픽 · 야마토, 스위스의 마이크론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을 물리치고 280만달러어치의 물량을 수주해 동종업계를 놀라게 한 프라임포텍은 현재 월 100만개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광통신부품시장의 침체로 판로개척에 고전,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다른 업체와는 대조된 모습으로 수출납품 시기를

맞추기 위해 올여름 전 직원들의 휴가를 연기해놓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이 회사가 설립 2년여만인 단기간에 국내 및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단순히 외국의 기술 및 제품을 이전해온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원천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프라임포텍은 최근 중국의 또 다른 업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등 해외업체와 수출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100억원의 매출목표를 세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직원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양순호 사장은 "정밀가공용 공작기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광통신 핵심부품인 페룰과 접목시킨 것이 주효했다"며 "특히 가격하락으로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도 제품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했을 정도로 연구개발에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에이티아이
기술신보 지정 우량기술기업 선정

광송수신모듈 전문업체인 에이티아이(대표 김도열 http://www.alignedtech.com)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정하는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빛의 신호와 전기신호를 변환시키는 광통신용 모듈제조에서 독보적인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아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됐다.

아이블포토닉스
차세대 압전 단결정 PMNT 양산

광소재 및 소자 생산업체인 아이블포토닉스(대표 이상구 http://www.ibule.com)는 최근 차세대 압전단결정으로 평가받는 레드마그네슘나이오베이트-레드티타네이트(PMN-PT)를 월 250㎡씩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PMN-PT는 의료용 초음파 탐촉자, 산업용 진동감지센서, 군사용 소나 탐촉자, 도파로 소자 등에 사용되는 소재로, 기존의 세라믹보다 전기기계 결합계수가 20% 이상 높고 압전상수도 2배 이상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이블포토닉스는 현재 의료용 초음파 탐촉자 생산업체인 아이블휴먼스캔 등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바 · 필립스 · 지멘스 등 해외업체와도 공급협상을 진행중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전 소재보다 성능이 뛰어나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30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전기
차세대 LED조명등 출시.

금호전기(대표 박명구)는 기존 백열전구 소켓에 꽂을 수 있는 가정용 LED조명등(모델명 큐레드) 양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8개의 고성능 LED로 빛을 내는 이 조명등은 소비전력이 1.6W에 불과해 하루종일 켜놓아도 전기 소모가 거의 없다. 평균수명은 백열전구의 30배인 3만 시간에 달해 램프의 추가 교체가 사실상 필요없다.

금호전기는 큐레드가 기존 백열전구를 간단히 대체할 수 있으며 백색, 적색, 그린 등 다섯가지 컬러 선택이 가능해 향후 조명시장에서 응용범위가 넓다고 밝혔다. 또 특수커버렌즈를 씌워 전방에만 빛이 모이는 LED광원을 확산시켜 160도 각도까지 광도가 균일하다.

제품 가격은 개당 5000~1만원으로 비싸지만 광고사인, 비상등 같은 특수조명 용도로 반영구적이다.

금호전기는 가정용 LED 조명등 출시를 계기로 차세대 광원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Photonics NEWS

새론
광도파로 손실률 측정 '프리즘 커플러' 개발

광주지역 벤처기업이 광도파로의 손실률을 비롯해 박막 및 벌크의 굴절률과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프리즘 커플러를 개발했다.

광계측기 개발업체 새론(대표 차균희 http://www.sairo.co.kr)은 국내 최초로 0.01dB/㎝ 이하까지의 광도파로 손실률과 박막 및 벌크의 굴절률과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프리즘 커플러 'SPA2000' 시리즈 제품을 개발해 양산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프리즘 커플러는 굴절률 정합액(인덱스 매칭 오일)을 이용해 광도파로 손실률을 측정하고 박막으로 레이저 빛이 들어가는 입사각도를 변화시켜 박막 및 유리, 폴리머, 플라스틱, 보석류 등 벌크의 굴절률과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유일한 경쟁업체로 세계시장을 석권해 왔던 미국 매트리콘(MATRICON)의 제품보다 10배 이상 정밀하게 광도파로의 손실률을 측정할 수 있는데다 박막 및 벌크의 굴절률과 두께 측정 정확도도 훨씬 높다고 새론 측은 설명했다. 새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화학연구소, 한양대 등 국내 대기업과 연구소에 장비를 공급해 타사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반면 가격은 저렴해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광통신업체 증가에 힘입어 올 상반기 10억원의 매출에 이어 하반기에도 20억원 가량의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일본 · 미국 ·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전시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차균희 사장은 "타사 제품보다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비록 후발업체지만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에서도 장비 구입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에 주력해 해외시장을 석권하겠다"고 말했다.

아뎁트코리아
광섬유 정렬장비 출시

아뎁트코리아(대표 이중엽)는 광섬유 두 가닥의 광축을 5초 내에 정렬해 주는 광섬유 포지셔닝장비 '나노스테이지 6'을 출시했다.

숙련된 기술자가 개당 5분 이상 걸리는 광섬유 광축정렬작업을 단 5초에 완결하는 일종의 로봇장치인 이 제품은 X, Y축은 50㎚, Z축 이동시 25㎚의 경이적인 정밀도를 자랑한다.

나노스테이지 6은 초정밀 XYZ피에조 스테이지와 PCI 모션카드, 전용알고리듬, 비전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각 모듈은 외부진동 방지기능을 지닌다.

아뎁트코리아측은 나노스테이지 6을 에폭시본딩의 피그테일링, 레이저다이오드 커플링 인서트 및 멤스어레이 작업 등에 적용할 경우 기존 수작업보다 광부품 제작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로광통신, 세협테크닉스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워크샵 개최

산업기반기술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는 우리로광통신(대표 김국웅)과 세협테크닉스(대표 박정수)가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동안 온도무의존형 64채널 DWDM AWG 기술개발, 다채널 Add/Drop용 MEMS 광스위치 개발에 대한 수행결과 발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했다.